20170206 오늘의 기사

주제: 차세대 인증기술(FIDO, 블록체인)

기사 요약: 차세대 인증기술로 FIDO와 블록체인을 이용한 인증기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

인증기술

1. FIDO: 인증정보(Credential)을 하드웨어 보안영역에 저장한 후 승인된 인증키로 인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법, 크리덴셜로 생체 적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, 하드웨어 단말에 저장한 생체정보와 일치하는 사용자의 생체정보가 인증키로 사용되어 인증을 완료할 수 있다.
2. 블록체인: 비트코인 거래 장부에 사용된 보안인증 기술로, 거래정보와 이 사실을 인증하는 정보를 두 개의 체인에 나눠 저장해 두 개의 체인이 결합했을 때 해당 정보를 알 수 이도록 한다. 이 같은 체인이 서로 연결돼 있으며, 인터넷에 저장돼 무한대로 확장된다. 거래에 참여하는 체인이 많을 수 록 안전해지며, 해킹이 불가능하게 된다.  
   특히, 2016년 방글라데시 은행이 해킹당해 SW IFT기록을 변경시키고 금전을 금전을 탈취한 사고 이후 이목이 집중되고있다.

인증을 대체한다고 해서 이 두가지 기술이 공인인증서를 대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FIDO는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역할, 블록체인은 공인인증서의 부인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공인인증서 자체를 대체 할 수는 없다.

SWIFT: ‘세계은행간 금융데이터통신협회’(Society for Worldwide Inter-bank Financial

Telecommunication)가 국제간의 대금결제 등에 관한 데이터통신의 연결망(Network)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3년 벨기에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다. 전 세계적인 은행들의 지분으로 조직되었으며 189개국 6,700역 금융기관과 결제 메시지 서비스(Core Messaging Platform 제공과 운영, Title Registry의 운영)를 제공하는 은행간의 글로벌 네트워크 연합체이다.

<http://www.ciobiz.co.kr/news/article.html?id=20170203120005>